NEWS & NEWS

치협 포탈사이트 구인 · 임대매매 · 구직 · 게시판 등 활성화 홈페이지 오픈 1주년 기념식 · 평가회 개최

KDA 포탈 사이트 접속건수가 지난 2년 사이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KDA) 포탈 사이트가 오픈 1주년을 맞아 9월 2일 치협 임직원 및 브레인 컨설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및 평가회를 가졌다.

이번 기념식 및 평가회는 지난해 9월 오픈한 치협 홈페이지 오픈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기념 케익 커팅을 가진 뒤 참석자들간 치협 홈페이지 운영 방안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가 펼쳐졌다.

이날 평가회는 (주)브레인 컨설팅측 홍상훈 브레인 컨설팅 과장이 실무대표로 치협 홈페이지 메뉴에 대해 설명 및 질문을 받고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자체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 참석자들이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KDA 포탈 가입자수는 치과의사 8138명, 일반인 5500명 등 총 1만36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일 평균 초기화면 방문자 수는 1500명이며 접속건수는 주당 3만1500번으로 지난 2002년의 1만번에 비해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접속 빈도가 높은 메뉴는 구인, 임대매매, 구직, (일반인) 자유 게시판 등의 순이었다.

참석자들은 치협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일반인들을 위한 메뉴도 개발, 치과계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검색기능 강화 ▲동영상 강의 보완 확대 ▲각 위원회 업무와의 연계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박규현 정보 통신이사는 "치협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준 브레인 컨설팅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히고 "치협 홈페이지는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발전된 모습을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치협 홈페이지가 오픈한지 1년여가 흐른 가운데 2만여 회원들을 위한 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며 "앞으로 더욱 치협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키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치협 · 치기협 협력속 추진 '지도치의제' 개선 나선다/"공조체제 필요" 공감대 형성

치협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영곤 · 이하 치기협)는 의료법 위반시 적용되는 면허 자격 정지 및 취소 등을 기공사뿐만 아니라 지도치의도 함께 처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양벌규정과 지도치과의사제도 개선 작업을 양단체간의 협력관계 속에서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9월 7일 광화문 모 식당에서 진행된 지도치과의사제도 개선 연구 회의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원활히 진행됐고, 양벌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또 양단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율징계권 권한을 위탁받아, 양단체간 협력해 비윤리적인 회원을 자체 처벌하는 방안 등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여기서 말하는 양벌규정이란 의료관계법령 위반시 기공사를 처벌함에 있어 해당되는 지도치과의사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날 자리에서 적극적인 논의 대상이 돼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해 냈다.

또 이날 회의는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시까지 현행 '지도'라는 법정 용어가 종적인 관계임을 암시한다고 판단, 용어를 순화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정 용어 개정 작업은 법률개정 작업과 보건복지부 등의 설득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이와 같은 작업은 정부관련 단체의 법령 개정 작업이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양 단체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적극적인 공조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간에 지도치과의사제도 개선을 위한 시발점이 됐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했고, 양 단체에서 주관하는 면허 갱신제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연구를 계속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의 김재영 부회장, 손정열 기획이사, 마경화 섭외이사, 김세영 전 섭외이사 등과 김춘길 치기협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재영 부회장은 "양 단체가 치과계를 이끌어 나가는 주요 단체인 만큼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치과의사와 기공사 간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과용 치료재료 개선 박차
보험위원회 자문회의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조기영)가 치료재료와 관련된 불합리에 본격적인 메스를 대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9월 10일 치과용 치료재료 관련 자문회의를 열고 일부 치과재료의 실거래가가 상한금액보다 높은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치과치료재료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미등록 치과재료를 조사, 적극 등재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복지부에서도 치과관련 수입 업소에 상한금액 범위 내의 판매를 준수하거나 상한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하도록 조치한 바 있어 치협에서는 복지부가 치협의 현안에 긍정적이라 판단하고 이번 기회에 치료재료와 관련된 대대적인 보완 및 개선을 할 계획에 있다.

복지부는 또 치과용 치료재료와 관련 용도 및 제품의 특징에 따른 명확한 품목군 분류 및 상한금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치과용 치료재료 품목군 정비를 위한 기초 자료'를 11월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료관리부로 제출할 것을 치협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치과용 치료재료와 관련된 개선작업을 위해 연세치대 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소장 김광만)에 연구 용역을 맡기고 11월초까지 연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연구를 진행하면서 수입업소 및 판매업소 관계자들과의 면담, 복지부 및 심평원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치료재료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조영식 보험이사는 "특히 방사선 필름과 관련 회원들의 민원이 많아 이번 기회에 방사선 필름의 상한금액을 높이든지 실거래가를 낮추든지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회원들도 상한금액 이상의 비용을 주고 사는 것은 본인이 손해라는 것을 인식하고 회원 각자가 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DI 총회 성과 등 보고
치협 정기이사회

치협은 9월 14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9월 10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정재규 협회장 등 FDI 치협 대표단이 귀국한 다음날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FDI 뉴델리 총회 방문성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정재규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인도에서 열린 FDI 총회가 무사히 끝났음을 알린 뒤 "치과계의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제기돼 있는 만큼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치협 국제 금연운동 적극 동참
금연위원회 아·태 금연대회 첫 참가 / '구강과 흡연과의 관계' 심포지엄 개최

치협은 38개국, 450여명의 보건단체 및 금연운동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7차 아시아·태평양 금연대회(APACT)에서 '흡연이 구강건강에 미치는 각종 유해성'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치협 문화복지위원회 특별기구인 금연위원회(위원장 김재영, 간사 김경선)는 '금연구역의 확대'를 주제로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경주보문단지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7차 아시아·태평양 금연대회(APACT)에 참가, 이같이 경고하는 한편 '구강건강과 흡연과의 관계'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금연위가 주최한 16일 심포지엄에는 국내 연자로 권호근 연세치대 교수, 홍정표 경희치대 교수, 홍성두 서울치대 교수, 유미현 남서울대 치위생학과 교수가 참여해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지역 치과의사의 흡연패턴 ▲흡연과 구강암 ▲구강내 흡연의 영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또 일본에서 참가한 히데오 이치키 원장(이치키 치과의원)과 다카시 하니오카 후쿠오카 치과대학 교수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금연정책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경선 문화복지이사는 "이번 아·태 금연대회 참여는 그동안 치협이 지속해 온 대국민 금연운동의 연장선상으로 '흡연이 구강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을 국내 및 전 세계적으로 알림으로써 이에 대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또 "치협 차원서 아·태 금연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만큼 그 의미가 깊다"며 "이번 대회 참여를 계기로 치협의 금연운동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성인의 간접흡연에 대한 유해성인식과 대응책'을 비롯, '금연으로 인한 사망률과 유병률에 대한 측정', '아·태지역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 등을 주제로 각종 금연운동의 문제점과 방향성 등을 짚어보는 기회가 마련됐으며, 금연과 관련된 각종 주장 및 연구결과, 각국의 금연정책들이 발표됐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소비자연맹, 대한결핵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아·태 금연대회는 지난 89년 이후 아·태 금연협회 회원국이 3년마다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